

파리7대학 초청,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체험 통해 우수성 알려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체험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리7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한국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파리7대학 한국어학과 안익 교수를 비롯해 학생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8월8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총무원장 스님과 환담을 했다. 이날 예방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스님, 파리 길상사 주지 해원스님,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목스님 등이 배석했다.

파리7대학 방문단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1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총무원장 스님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안익 파리7대학 교수가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재차 학생들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됐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조계종 국제팀의 주관으로 학생들의 한국 방문이 성사됐다.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안익 교수는 “학생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문화의 바탕에는 불교문화가 깔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라카 벨리 학생은 “(사찰 방문에서 만난) 스님들께서 큰 지혜를 주셨다”고 불교문화 체험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셨다니 반갑고 축하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한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스님은 “프랑스로 돌아가서 한국방문에 대한 설문을 받아 보내주시면 앞으로 격년으로 파리7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초청해 교류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에 앞서 파리7대학 방문단은 지난 1일부터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범어사 등을 찾아 템플스테이와 간화선 수행 체험 등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_ 불교신문 엄태규기자



(좌) 회향 한마당 울동 공연 (우) 연등놀이 행렬에 참가한 서포터즈

연등회 보존위원회,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활동 결과 보고서 발간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하고 알차던 올해 부처님오신날 축하 연등회는 특히 국제자원봉사단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국제행사에 걸맞게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요소요소 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했던 것. 새롭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당시 현장에서도 연등회의 외연의 폭을 넓히는 물론 한국불교의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연등회를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를 부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점들은 국제자원봉사 활동결과보고서에도 잘 드러난다.

국제자원봉사의 구성과 활동에 관계했던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 문화사업단, 기분좋은QX(주)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활동에 참여한 내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는 96%가 만족한다고 답해 외국 참가자의 호응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연등회 현장 참여활동과 템플스테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등회 모니터링에서도 “연등회가 인종, 종교,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어로 소통 가능한 인적자원을 구축하여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새롭게 도입한 국제자원봉사단은 서울 시내 각 대학 및 SNS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총 103명이 지원했으며 내국인 33명, 외국인 31명 등 총 64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6회의 사전교육과정을 통해 한국불교와 연등회 이해 및 불교문화 체험시간을 가졌으며 연등회 자원봉사활동과 활동보고 워크숍(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2월부터 진행된 자원봉사단 모집 홍보를 통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부수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 모집 홍보가 평소 불교에 무관심하던 일반 젊은 층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한국인 대학생들이 연등회와 한국불교에 관심을 두는 기회가 되었고, 한국불교와 연등회의 홍보네트워크로서 SNS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연등회의 발전을 위한 참가자들의 조언도 새겨들을 만하다. 자원봉사자들은 몇 년간 축제 공간의 쾌적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전반적인 정보 제공 및 안내의 형식 면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_ 편집부

군산 동국사, 국내 유일 가로형 쌍림열반도 이운법회 봉행

근래 규장각 외서, 조선 왕실 의궤 등 해외로 반출되었던 우리 문화재 환수와 관련되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문화재의 환수가 눈길을 끈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스님은 7월 31일 국내 유일의 가로형 불화인 조선 초기 '쌍림열반상도(雙林涅槃相圖)'를 이운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이운법회에서 종걸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간의의 과정을 소개했다. 스님은 지난 6월28일, 화기(書記)가 없는 불화 1점이 일본 경매시장에 출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이치노헤 쇼코(一戸彰晃, 아오모리 운상사 주지) 스님에게 의뢰하여 내용을 파악한 결과 "관서지방의 사찰에서 봉안하다 규슈의 한 화랑에서 사들인 조선 불화인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약탈했거나 일제강점기에 흩쳐온 불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답변을 듣고 즉시 동국사에서 입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불화 전문 학자의 자문 결과, 조선 불화가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우리 문화재로 자체 판단하고 입수, 무사히 군산 동국사로 모셔와 마침내 이운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이다.

<쌍림열반상도>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 가운데 부처님이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로 225cm 세로 93cm 크기의 마(麻) 소재 바



탕에 그린 진채(眞彩) 불화로 위쪽에 막대를 끼울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다. 주로 녹색과 적색의 석채 안료와 금분을 사용하여 부처의 열반 당시 장례 모습이 모두 담겨 있다. 석가가 가섭에게 두 발을 보이는 장면, 여덟 왕이 사리를 나누는 장면,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든 석가를 중심으로 보살들과 제자들이 애도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보관(寶箱) 위에는 석가가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열반에 들었고, 석가 주위에는 슬픔에 가득 찬 보살과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성중들의 비통한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사라쌍수는 두 가지를 구부려 하나 된 모습을 하고 있고, 화면 상단에는 석가가 열반에 들자 하늘에서 마야부인이 내려와 애도하는 모습이 보이며 공중에서 쏟아지는 오색 사리와 가야금, 거문고 등 조선 전통악기가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흥재 전북도립미술관장은 "화기가 없어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쌍림열반도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로형 불화로는 유일한 것이라 조선시대 불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팔상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화를 감정한 문명대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일부 덧칠한 부분이 있지만, 진품

으로 보이며, 육안으로 봐서 수백 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고증을 당부했다.

종걸스님은 "조선시기는 1,500년 중·후반 정도 즉, 임진왜란 직전 16세기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남아 있는 쌍림열반도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며, 사리를 8등분하는 장면이 담긴 불화로서는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올 11월에 전문가의 학술발표를 통해 확실한 고증을 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팔상도는 직지사 소장 [용문사 팔상도 쌍림열반상(1709)]이다.

이번에 동국사로 돌아온 쌍림열반도의 경우는 약탈 문화재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민간 주도로 환수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앞으로도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들이 더 많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군산 동국사 063-462-5366

국제포교사 활동을 하며 느끼는 작은 행복, 사나트 반두시리 씨를 그리며

2012년 6월 29일 저녁, 일찍 퇴근하여 쉬려고 하는데 인사동 입구 편의점에서 세나카 위라라트나(Senaka Weeraratna)라는 사람을 아느냐는 전화가 왔다. 그는 '2012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때 만났는데, 행사 후 '서울시티투어' 행사를 같이 하면서 친해진 스리랑카 사람이다. 깜짝 놀라서 안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세나카 위라라트나 씨의 선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 편의점에서 기다린다는 것이다.

2012년에는 유난히도 가물었는데 그 날은 출발하기 직전부터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어렵게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스리랑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리랑카 정부에서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데 카이스트 석사/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온 사나트 반두시리(Sanath Bandusiri)라는 유학생이었다. 다음 학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에 가는 길에 선물을 전해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내게 건넨 선물은 스리랑카 차(茶)였다. 자정 가까워질 무렵이라서 행선지로 가는 마차도 끊기고, 숙소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갑작스레 집으로 초대했더니 흔쾌히 응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 모두 반두시리 씨를 반갑게 맞이했다. 애들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 집에는 며칠 전부터 꽃망울을 맺기 시작한 문주란이 심어놓은 지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활짝 피었다. 반두시리 씨에게 아마도 뜻밖의 귀한 손님을 맞으려고 문주란이 피었나 싶다고 말했더니 기뻐했다.

다음 날 아침 반두시리 씨에게 문주란



을 보여주었더니 스리랑카에도 이런 꽃이 핀다고 한다. 자기 집 뜰에도 문주란이 있는데, 스리랑카에서는 이 꽃이 화려하고 귀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꽃 공양으로 올린다고 하며 자기 휴대전화에 저장된 꽃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스님을 소개하기 위해 이경호 국제포교사와 함께 경기도 양주시 소재 마하보디사의 와치짜라 스님을 만나러 갔다. 두 시 경 마하보디사에 도착하니 반두시리 씨는 물론이고 와치짜라 스님도 매우 반가워하셨다. 국제포교사로서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좋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듯이 서울고속터미널에서 반두시리 씨를 대전으로 떠나보내고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요즘 들어 반두시리 씨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때마침 며칠 전부터 우리 집 동양란에서 꽃대가 올라오더니 연녹색의 꽃망울을 터뜨렸다. 발코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을 타고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졌다. 그 향기는 지난해 피었던 문주란을 생각나게 하면서 반두시리 씨를 더욱 그리워하게 한다. 동양란이 우리에게 반두시리 씨와의 재회를 가져다주기를 바라면서...

글_ 국제포교사 이병두

파라미타, 국제교류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청소년들이여,
한국을 넘어 세계를 보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스님)는 중국 국제청년교류중심과 함께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4회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를 실시했다. 이번 국제교류는 중국 칭다오시(靑島市)와 자오난시(濰南市), 르자오시(日照市) 등지에서 현지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익힘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국제 감각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중국학생들과 함께 합동 공연, 체육대회, 조별 게임 등을 즐기며 친교를 나누었고 중국 학생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파라미타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과 가족들이 친절하게 대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줘 매우 고맙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익숙한 중국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은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죽마고우처럼 허물이 없어졌다. 천지원(진주 명석중학교 2학년)양은 "영어로 그럭저럭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면서 "중국 친구의 집을 방

문해 아이돌 EXO의 CD를 선물한 뒤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오난시 제6중학교 학생인 쉬리화(徐麗華, 15세)양은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한류스타 등을 통해 동질적인 부분 또한 많다는 걸 깨닫게 됐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해 친구와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짧은 만남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창성 뉴 에너지 그룹과 해양대학교, 해군박물관, 노신공원, 오사광장, 녹차밭, 청도 신호산, 잔산사 등지를 잇달아 참관하며 중국의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족학교인 '청도 정양학교' 수업 참관, 이순규 청도정양학교 이사장의 '세계 속의 재외동포' 강의 등을 통해 민족과 언어와 문화의 소중함도 깨우쳤다.

국제화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타문화의 이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과 올바른 교육 및 문화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준비된 이번 행사는 참가 학생들이 중국의 문화와 경제, 정신문화를 직접 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_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02-723-6165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를 위한 미얀마 현지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오는 9월 22일, 미얀마에서 지역사회개발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현지 활동가들이 한국에 초청된다. 2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불교 국제개발협력 NGO 미얀마 현지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번 한국초청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의 지원으로 지난 6월 미얀마에서 2주간 있었던 1차 현지 교육에 이어 안전행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미얀마에서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4개의 단체(더 프라미스, 따비에, 로터스월드,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KOCO))가 공동주관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NGO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이자, 공동으로 현지 NGO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미얀마 현지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은 현지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부터 출발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취지는 최근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 조치 이후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 공여국의 막대한 개발원조자금 지원계획, 천연가스, 구리, 티크 등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려는 해외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미얀마의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투자와 자본 유입으로 인한 이익이 미얀마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오히려 주민들



의 건강과 자연환경, 생계대책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 물질과 자본의 가치가 우선되는 대신 불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유지해온 공동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작년 미얀마 북서부 모니와 지역에서 중국 구리광산회사가 광산개발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농지를 빼앗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스님들에게 정부가 화염방사기를 발사했던 사례를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고, 군사정권 시기의 인권탄압 관행과 차별정책이 남아 있는 점, 불교도와 무슬림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등이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 개발의 결과로 얻는 이익이 지속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미얀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현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전통과 공동체성을 보존하는 방식의 지역사회개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책과 제도 수립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얀마 현지에 파견된 한국인 활동가가 아닌 미얀마 현지인 활동가들이 사회와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을 찾도록 훈련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스로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미얀마 현지 활동가들은 세계와 사회, 미얀마 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며, 주민중심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 활동가로서 사명 의식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6월 미얀마 만달레이 뻬우린에서 진행되었던 1차 교육에서는 미얀마 현지 아홉 개 NGO의 활동가 15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참가하였으며 미얀마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꼬다(Ko Tar), 민주화 운동가로서 5·18 광주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밍꼬나잉(Min Ko Naing), KOCO 강인남 대표 등이 강의를 통해서 미얀마의 역사와 사회

경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문제), 개발과 주민중심의 발전, 활동가로서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과 함께 일하는 방식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번 한국초청교육에서는 1차 교육에 참여했던 현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 사회경제, 민주화의 역사와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또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안 운동을 소개하고, 주민참여형 복지, 협동조합, 인권과 공동체문화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현장방문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할 기회가 될 것이다.

‘주민들은 이미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익힌 지혜이다’. 스스로 가능성을 찾고, 발전을 이룰 힘을 만드는 현지 활동가 교육!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그리고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과 세상의 변화를 지지하는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글_ 로터스월드 민정희 사무국장

광명암-지구촌공생회, 미얀마 어린이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마산 광명암(주지 정인스님)은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와 함께 지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얀마 아난다미따 광명 초등학교 교장과 학생 등 17명을 초청해 문화재 탐방, 템플스테이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금산사, 광명암, 통도사를 방문하여 한국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경주박물관, 놀이공원, 현대



자동차공장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와 역사, 발전상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아난다미따 광명 초등학교 재학생인 짜투스(남, 11세) 학생은 “미얀마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해 미얀마를 한국처럼 더욱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광명암 주지 정인스님은 “아이들이 한국의 빠른 발전에 자극을 받아 미래에 미얀마를 이끄는 동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아이들이 미얀마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얀마 양곤주(州) 동다곤 타운십에 위치한 아난다미따 광명 초등학교는 지난해 11월 7일 지구촌공생회가 광명암의 후원으로 건립한 학교로, 174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5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할 예정이다. 광명암은 올해 5월 지구촌공생회 마산지회로 등록되어 후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정기후원 문의 02-3409-0303

◀ (위) 김해공항 입국 후 (아래) 통도사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캄보디아에서 봉사 활동 전개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스님)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청소년 해외봉사단 ‘청춘 두드림’ 1기를 결성하고, BWC 아동센터와 연계해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청소년의 국제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국제 경험과 봉사능력을 향상하고,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 친선 및 상호 이해증진에 이바지해 글로벌 리더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대학생 4명, 청소년 9명으로 구성된 청춘 두드림 봉사단은 7박 9일간 BWC 아동센터에 머물며, 씨엠립 이응페 초등학교에

서 현지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미술과 체육, 음악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봉사를 했다.

또 열악한 초등학교 시설 지원을 위해 학교 외벽 페인트 작업을 했으며 한편 마을 우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현지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했다.

봉사단원으로 참가한 오유미(강릉고1) 학생은 “힘들지만, 또래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어린이를 도울 수 있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다”고 밝혔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031-201-8317

▼ (좌)발대식 모습 (우)화장실 건축 후 기념 촬영



뉴욕 불광선원, 수불스님 초청 특별법회

대한불교조계종 뉴욕불광선원(주지 휘광 스님은 7월 28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을 초청해 특별 법회를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수불스님은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포교원장 지원스님 등과 함께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뉴욕 불자들을 위해 이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불스님은 법회를 통해 종교와 수행관에 대해 법문을 후, 신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스님은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적 장치가 완성되어 질서를 잡는 힘이 생겨나고, 종교라는 개방된 힘이 등장했다. 이중 한국 불교는 1,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다. 불교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안팎이 같은지 증명하는 마음의 종교”라며 “구태의연하게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기복에 매달리지 않고 긍정적 사고와 유연성을 지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힘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자신을 자각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로운 모습으로 참다운 삶을 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가야 될 길을 잘 알고 간다면, 큰 실패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집착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란 신도의 질문에 “부모는 자식이 어렸을 때는 관심의 관심을 보여야 하고, 사춘기가 되면 그것이 관심의 무관심으로, 출가할 때엔 한발 물러나서 바라보는 무관심의 관심으로, 출가 이후에는 그 자식이 세상을 폭넓게 볼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관심의 무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전을 공부할 때는 육안으로 보고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기식으로 소화하면 안 된다. 불법을 잘 아는 자, 즉 법안을 지닌 스승을 만나 안목을 열고 경안을 열고 보아야 깨달음이 열린다. 주변에서 스승을 만나기 어려우면 기다리든지 찾아가든지 해야 하고, 아니면 발원을 하고 공부를 계속하면 인연을 만나 눈뜰 기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보시하는 마음을 지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단점을 지적하지 말며 포용심을 지니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글_ 뉴욕 불광선원 총무 문중스님



북가주 청년 불자 모임, 여름 캠핑 법회 개최

지난 8월 17일 토요일, 북가주 연합 청년회 '타라(TARA)'는 창단 이래 세 번째 와인 파티를 열었다. '좋은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파티에 27명 정도의 젊은 불자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불교라는 종교를 배경으로 진행된 모임이긴 하지만, 종교를 떠나 북가주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소셜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행사였다. 북가주 불교 행사에 적극 동참, 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젊은 힘을 보태다가 한 해에 한 번씩 치르는 이 행사를 통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친목을 도모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다.

담당 지도법사인 형전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모임을 열고, 함께 반야심경도 독송하며, 멤버들이 각자 준비해온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타라(TARA) 회장 안정열 군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타라(TARA) 멤버들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것 같아 더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타라(TARA)는 앞으로 다가올 '불자들의 밤(불자들의 송년파티)'에 참여하는 등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에는 어디든 앞장서서 도움을 드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겨울 캠핑 등 회원들의 친목을 위한 모임도 잊지 않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겨울에는 새 회장 선출 등 많은 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변화 뒤에 올 성장을 기대해 본다.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정기 법회를 열고 있으며 젊은 불자들의 동참을 환영한다.

문의_ 회장 안정열 +1-510-393-3395

워싱턴 보림사, 선사의 역설: 수불스님의 방문



범어사 주지이자 안국선원 창립 선원장이신 수불스님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불교계 대표로 참석했다. 빽빽한 스케줄 사이에 수불스님은 우리 불자들을 만나고자 공식 만찬을 취소하고 26일 금요일 오후 워싱턴 보림사를 방문했다. 사흘 전에 수불스님의 방문을 통보 받은 보림사는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방한 중이던 주지 경암스님도 수불스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급히 복귀하였다. 간화선 현대화의 선구자로서 한국 최고의 참선수행 도량을 일으킨 수불스님의 보림사 방문에 가장 흥이 난 것은 보림사 참선반이었다. 지난 7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정진하면서도 항상 가르침에 목이 말랐었다. 그래서 손님맞이를 위한 청소부터 공양 준비까지 모두 참선반에서 주도하였다.

수불스님의 보림사 방문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스님을 모신 차량이 경내에 진입하고 이내 스님이 하차하자 모든 신도가 함장으로 환영하는 가운데 반가운 미소로 영접하는 주지스님과 수불스님은 뜨거운 악수를 교환하였다. 수불스님은 “밥 얻어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환영해줘 고맙다”고 답례했다.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누다 정성껏 준비한 공양을 드신 후 수불스님 특별법회가 열렸다. 처음 만나는 불자들에게 많이 내려주시는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에 관한 법문과 함께 보림사를 방문하신 특별한 소회를 말씀하셨다. 법문이 끝나자 여러 진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회를 마치고 참선반의 특별요청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법당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시간이 재현되었다. 워싱턴 한국불교계와 처음 만나는 스님에게 사람들은 묻고 싶은 게 많았다.

질문 하나: 스님...미국 오기 전에 스님께 직접 법명도 받은 불자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참선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림사에서 오랫

동안 참선반 활동하고 있고요..., 참선반을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요...

수불스님: 참선, 참선 떠들지 마라. 참선한다고 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절에서 참선파와 비참선파로 나뉘어 신도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자주 봤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도 되지 않는다. 참선한 사람이 양보하여 참선의 '참' 자도 꺼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참선이다. 열심히 앞장서서 이 절의 스님을 도와라. 상을 내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묵묵히 절을 돕는 것이 진정한 참선이다.

질문 둘: 말씀만 들던 큰 스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니 저희는 복권에 당첨된 것만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참선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 직접 화두를 받고 싶습니다.

수불스님: 눈을 못 뗐는데 화두를 들면 뭐하나? 자기한테 맞는 제대로 된 화두를 만날 때까지 봉사하며 기다려라. 의심을 억지로 일으키는 것은 진짜 의심이 아니다. 이렇고 하라고 화두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화두는 몸 망치고 인생도 망칠 수 있다. 이렇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활구 참선을 해야 한다.

참선의 '참' 자도 꺼내지 말라는 가르침. 화두 들지 말라는 가르침. 선사가 아니면 내릴 수 없는 이 역설적 가르침. 이로써 이날 모인 워싱턴 보림사 식구들은 또다시 역설적으로 참선과 훨씬 가까워졌다. 불법을 역설로 가르치는 힘, 그 법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금쪽같은 시간. 3박4일 공식 일정 가운데 짬을 내어 마련한 비공식 일정이었지만 워싱턴 불자들에게는 복권 당첨보다 더 소중한 큰 선물이었다.

글/사진_ 이종권(미주불교신문 편집국장)
출처 www.koreanbuddhism.us

미 북가주, 청소년 연합 단체 'KAYBA' 여름 캠프

2013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카이바 여름 캠프가 차붓호수와 정원사(719 Lakehaven Dr Sunnyvale CA 94089)에서 열렸다. 매년 사찰에서 하던 캠프를 자연으로 장소를 옮겨 놓은 것이다. 지난 1월부터 계획을 세워 준비한 행사는 카이바 지도법사 형전스님과 공태운 법우님이 주축을 이루었다. 카이바 회원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세세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난 7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아이들의 관점에서 준비했다. 다른 캠프와는 다르게 아이들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최소한의 어른들 도움(정원사, 죽림정사, 타라)이 있었지만, 요리도 하고 밀가루로 설거지도 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참여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야외에서 하는 캠프라 하이킹이 오전과 오후에 있었고, 자연에서 하는 명상은 집중이 저절로 되었다. 산간지역이라 핸드폰도 사용하기 힘들어 자연히 인터넷 세상에서 멀어졌고, 아이들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며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날 오전에는 산 정상에서 명상하고, 가까운 호수에 가서 페달 보트를 타면서 물놀이를 즐겼다. 또래들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이해하고 동생은 형들과 누나들을 따르며 소통을 배웠다. 두 시간을 달려온 타라(TARA, 북가

주 연합 청년회)의 브라이언은 병원의 바쁜 스케줄로 힘든데도 아이들에게 요가 가르치는 걸 주저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 반한 범휴스님이 명상을 지도해주셨다. 이분들 외에도 처음부터 함께한 공태운 법우님 그리고 음식준비와 장을 함께 보고 계획한 지은경, 강태욱 부부 불자들이 없었다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형편에 따라 하루 또는 이틀 그리고 삼사일 참여했지만, 그 시간의 다소에 상관없이 친해졌고, 한국인 그리고 불교인의 자부심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아이들은 카이바의 1년을 책임질 회장단 선거를 했다. 회장은 이석원군 부회장은 김기운 양 총무는 조재영군으로 결정되었다.

세 번째 날은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 캠핑을 마무리했다. 자기의 물건을 챙기고 힘을 모아 텐트도 거두는 등 3시간 남짓의 마무리 시간은 아이들이 협동심과 인내를 배울 좋은 기회였다. 몇몇 어른들의 도움으로 산호세 정원사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주먹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수선회 수연 거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찾는 불교' 강의를 해주었다. 이후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불교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을 함께 감상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젊은 영화도 보았다.

마지막 날 13일은 아침 일찍 6시에 기상



해서 하루를 시작했다. 정원사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아침을 먹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쓰는 툴링페이퍼를 쓰고 12시쯤 회향식을 가졌는데, 카이바 회장단에게 임명장과 동참자에게는 수료증을 증명했다. 개인 각자에게 써

준 가슴 서린 편지 한 통씩을 받고 나서 진하게 포옹을 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헤어지려니 많이들 서운한가 보다. 부모님들이 차로 데리러 오셔서 한 명씩 헤어질 때마다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캠프 기간 동안 스님들과 또래 아이들과 고민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홈 스쿨링 하는 강술(10)부터 12학년이 되는 조재영까지 스무 명 가까이 함께한 아이들과 도우미들이 하나가 되는 캠프로 회향했다. 부처님 품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조금은 배운 캠프였다.

글 카이바 지도법사 형전스님



애리조나 법흥사, 포교를 위한 힘찬 발돋움

미국 애리조나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피닉스에 있는 법흥사 법흥선원이고, 또 하나는 투산에 있는 서종사이다. 법흥사는 서구사회에 간화선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펴고자 2007년 7월 창건되었으며, 전통 한국식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불사 중이다. 불사를 마치면 미주 서남부에서 한국불교식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피닉스에서 진행되는 법흥사 불사와 별도로 세도나에서도 간화선 수행도량으로 사용하게 될 법흥선원의 불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법흥사, 서종사 두 사찰 모두 조계종 스님이 항상 상주하면서, 스님과 불자들이 한 가족처럼 모든 일을 스스로 화합하면서 지내고 있다. 일요일 오전 10시에 정기법회가 있고, 부처님오신날 등에는 특별법회를 하고 있다. 이번 백중을 맞이하여 투산의 서종사는 8월 18일 일요일에 신도 모두가 동참한 가운데 우란분절 백중-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피닉스 법흥사 법흥선원은 8월 21일 우란분절을 봉행했다.

우리 불자들은 태평양 건너와 이민생활을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세월의 흐름에 무감각하게 지내곤 한다. 하지만 절에서 수행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게 한다. 이제는 제법 절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레 수행 정진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내년 봄에는 고국인 한국으로 성지 순례를 가려고 3년 동안 부지런히 저축하고 있다.

외국에 살다보면 근처에 절이 없어서, 부처님 법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 특히, 스님은 평생 한 번이나 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이다. 여기에 사는 재가불자들은 모두 불보살님의 화현이다. 한국 불교가 세계 곳곳에서 꽃을 피워 불자들의 소망대로 수행 정진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모두모두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길 축원한다.

글 법흥사 법흥선원 주지 법연스님
+1-480-259-8988

불기 2557년 제3회

꿈과 희망 가득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 연수

세계 속에 우뚝 설 한국불교 미래 인재들이여!

2013년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꿈을 찾아 함께 떠나봅시다. 미 동·서부 지역 청소년들을 만나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봅시다. 앞으로 한국불교의 큰 동량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 일 정 2013년 12월 23일(월) ~ 2014년 1월 2일(목) 10박 11일
- 장 소 미국 동부지역(뉴욕, 워싱턴, 보스턴, 맨하탄, 로디아일랜드 등)
- 대 상 열심히 수행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 청소년부(주지님 추천)
- 인 원 한국 30명, 미동부 5명, 미서부 5명 총 40명
- 지도법사 정법스님(한국/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형전스님(미서부/정원사총무)
- 참가비 한국학생 - 350만원 / 미국학생 - \$1,100(미국내 항공료 별도)
- 준비물 추후 공지
- 신청기간 2013년 9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dourim.net 접속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메일송부_ kbin8985@naver.com 팩스송부_ 02-733-8985
- 신청금 100만원
- 문 의 한국 케이빈 신청화 010-5504-8154 / kbin8985@naver.com
미동부 고병희 +1-917-533-8175 / sinnanmom@yahoo.com
미서부 안정영 +1-510-393-3395 / chongwonsa0123@gmail.com
- 프로그램 - 허버드, 콜롬비아, 예일, 케임브리지, 프린스턴 등 대학 탐방
- Inner Harbor,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다운타운, 엠파이어빌딩 전망대 등 관광
- UN본부, 자유여신상, 알링톤 국립묘지, 링컨기념관 등 방문
- 뉴욕 불광선원, 원각사, 프로비덴스 센터 등 순례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전법단,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조계사, 수덕사, 국제선센터, 화계사, 육천암, 뉴욕 불광선원, 캘리포니아 정원사, LA 태고사, 미동부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연수단

노르웨이 불교의 역사와 현황

오슬로, 노르웨이 - 노르웨이의 불교계는 두 가지 성격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노르웨이인과 서구인들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된 불교이다. 노르웨이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기독교와는 다른 성격의 영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1970년대 초 불교가 도입되었다. 1972년 오슬로의 푸로그너 공원 근처에서 선 명상 학교가 시작되었고 1975년 티베트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센터가 세워졌다. 그 후 이곳을 중심으로 다른 종파의 불교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인이나 다른 서구인들이 만든 불교조직은 현재 7개가 있다. 그들은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서 및 잡지 출판, 교육프로그램 개설, 명상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카르마 태시 링 불교센터(the Kama Tashi Ling Buddhist community)는 오슬로의 보른달에 사찰과 센터를, 오슬로 중심지에 명상센터와 불교서적, 불교예술품 가게를, 오슬로 남쪽 스키시(市)에 수행센터를 각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노르웨이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불교 운동과 달리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불교도가 많은 나라

에서 유입된 이주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민족종교로서의 불교가 있고 사실 이들이 노르웨이 불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날 불교도로 등록된 만 명 이상의 불교도 중 85%는 이들 5개 국가에서 유입된 1세대 혹은 2세대 이민자들이다.

이런 아시아 출신 불교도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사회를 형성했다. 베트남불교기구는 1975년, 태국 불교협회는 1991년, 미얀마 테라바다불교협회는 2005년, 캄보디아 불교협회는 1998년,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협회가 1993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은 사찰을 짓고 본국에서 스님들을 모셔왔다. 베트남 교민사회가 1999년 노르웨이 최초의 사찰을 지은 후로 현재 4개 사찰을 더 가지고 있고 수십 명의 스님이 이 사찰들에서 생활하고 있다. 태국교민사회는 5명의 스님을, 미얀마 교민사회는 두 명의 스님을 모시고 있다.

노르웨이 전체로 보아 총 12개 불교조직이 불교협회(The Buddhist Association)을 통해서 협조하고 종교와 생활위원회(The Council for Religious and Life Stance Communities)를 통해 노르웨이 안의 다른 종교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M. Michael Brady, The Foreigner [2013. 8.6]



(카르마 태시 링 불교센터)

불교도와 미국 원주민,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축제 예정



이번 가을 불자들과 미국 원주민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다시 몬타나에서 만난다. 이왕 상-객 링 공동체가 개최하는 제9회 평화 페스티벌은 9월 7일 토요일 몬타나의 알리에 있는 '천 분의 부처님들의 정원'에서 열린다. 행사장소가 플랫폼헤드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위치한 이유로 페스티벌은 그 지역의 샬리스족과 쿠티나이족 출신의 연장자들, 활동가들, 음악가들과 무용수들이 주로 참여하고 또한 티베트 스님들과 티베트 공연자들도 동참할 것이다. 미국의 불교 스승인 쏘모 스님이

페스티벌의 주제인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기"에 대해 기초연설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네이키드 쏘울"이 음악가들과 무용수들의 공연들을 대서특필할 예정이다.

다양한 무대공연 외에도 원주민들의 문화, 음식, 공예품,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평화활동 등을 전시할 부스 등이 설치되며 모든 참여자가 기금 조성을 위해 제3회 '평화를 위한 1마일 걷기'에 참가한다. 페스티벌의 참가비는 무료이다.

Shambhala Sun [2013. 8. 26]

불교와 이슬람교 지도자들, 관계 증진 위해 노력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이슬람 정치인과 불교 단체가 두 종교 간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

국회의원인 무자히드 유소프 라와와 불교 단체인 바즈라링크(Vajralink) 운동의 지도자인 쉐랍 왕은 두 종교 간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각 개인과 단체들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대화로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각 종교는 구성원들이 상대 종교의 구성원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인종사회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견해를 갖지 않도록 확신시켜나가야 한다."

그들은 성명문에서 최근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결핍되면서 종교 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도전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한 휴양지에서 불교도들이 이슬람 기도실을 사용하면서 야기되었던 사건을 상기시켰다. 그 휴양지의 관리인이 싱가포르의 불교 단체가 이슬람 기도실을 명상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 이슬람 교도들이 들고일어났고 관리인은 경찰에 구금되어 조사받았다.

"이 사건은 어떤 장소에 대한 분별력의 결여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다른 종교 간에 고도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

두 지도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존경이 실종되고 있고 이 때문에 사회의 다인종적인 성격이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어떤 지역이 고의적으로 종교 간의 갈등을 선동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불교사찰)

두 지도자는 이슬람이 말레이시아의 공식적인 종교이지만 다른 종교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연방헌법을 다시 볼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정부가 국민 사이의 증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러 종교적 감수성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들은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말아야 하며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과거를 보면 소소한 사건들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악한 동기로 이용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심각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무책임한 사람들의 의해 영향을 받거나 변색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성숙하고 열린 마음으로 현 상황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무자히드와 왕은 말했다.

무자히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평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종교 간 대화기구'(Southeast Asia Inter-religious Dialogue for Peace)의 회장이다.

Elizabeth Zachariah, Malaysian Insider, August 15, 2013 [2013. 8. 15]

자제공덕회, 음력 7월을 안락한 달로 만들고자 노력

타이베이, 타이완 - 타이완에서 음력 7번째 달은 '귀신의 달'로 불린다. 전통적으로 이 한 달은 위험이나 불행과 관련된 달로 간주하였으나 한 불교 자선 단체가 이 기간을 즐겁고 상서로운 시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제공덕회는 "올해 귀신의 달에 해당하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북돋우고 귀신의 달과 관련된 미신들을 내쫓기 위해 국내외에서 900회

이상의 기도회를 갖는다."라고 발표했다. 오페라극단도 동참해서 불교 설화 공연을 통해 밝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귀신의 달' 동안 사람들은 위험한 일, 즉 수영, 여행, 밤에 집 밖에 나가는 행동 등을 피하는데 유명인들이 영혼들을 잡아 가려고 지키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제공덕회는 사실 알고 보면 음력 7월은 아주 즐거운 시기라고 믿는다. 음력 7월15일은 부처님 생존 시 부처님 제자들의 하안거가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계 동안 명상을 하며 깨어있는 생활을 실천했던 부처님 제자들처럼 귀신의 달과 연관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고 오히려 의식을 각성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제공덕회는 작년에 귀신의 달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4,000회가 넘는 행사를 개최했고 1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약 28만 명의 사람들이 흥겨운 축제에 참석했다.

CAN [2013. 8. 28]



불교에서의 시간 여행의 의미

싱가포르 - 이 질문에 대한 불교적 대답은 복잡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지닌다. 시간여행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신적 여행도 고려될 수 있는데 불교적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시간 여행의 흔한 예로 현재에 나에게 미칠 나쁜 결과를 없애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아직 미처 결흔하지 않은 할아버지를 죽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우발적 사태를 불러온다. 최종적인 결과는 그 자신, 즉 할아버지의 손자인 자신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파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가 더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과거로 여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는 현재 살아 있고 여행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 살 수도 없고 따라서 시간 여행을 할 수도 없다는 이중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간여행의 이러한 역설은 실재(reality)의 광범위한 복합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에서 야기된다. 그것은 단선적인 원인과 결과의 파괴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화엄경에 나타난 불교의 교리는 세상이 촘촘하게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성의 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각각의 현상이 다른 모든 현상과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



든 것은 하나이다의 방식으로 연결된 것이다. 앞에서 들었던 예를 이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자. 시간 여행자 할아버지의 삶과 죽음은 상상이 가능한 그 이상으로 더 거대한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시간여행은 서로 연결된 실제 삶의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서 단 한 사람의, 단 한번의 시간여행도 우주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존의 모든 것이 파괴되게 된다. 역사책에 기록된 글과 이미지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마술처럼,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의 교리는 물리적 시간여행

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하다. 이 여행은 정신적이며 지나간 삶을 회상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이것은 심리적 능력이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약이긴 하다. 과거로의 정신적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불교적 근거는 아미타불 48대원의 다섯 번째 서원이다. 무량수경에 따르면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삶을 의식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야말로 무량한 삶의 무량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무한하고 경계 없는, 아미타불과 동등한 복덕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의지는 정토의 모든 존재가 가장 효율적으로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정토의 평정한 삶을 누리며 아미타불의 보살핌 아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카르마(업)의 법칙이 얼마나 실제로, 세세히 적용되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다. 정토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망상과 잘못된 상상에 빠지거나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또한 아무 혐오 없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러한 과거로의 돌아감은 보살도를 발전하게 된다. 카르마의 작용으로 어떻게 고통

받았는가에 대해, 또한 해탈을 향해 자신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현명한 지식을 얻게 되면서 동시에 자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리심이 증강되고 보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앞서 논의된 대로 엄밀히 적용되는 인과의 법칙 때문에 불교의 시간 여행자는 과거 시간의 사건 속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는 단지 관찰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미타불의 위력에 힘입어 우리는 과거의 일시적 채널 속으로 생생히, 고화상도 3D 서라운드 시스템 속으로 세세히 몰입해 들어가게 된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정신적으로 과거 속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때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시 직면하면서 다시 새롭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과거에는 놓쳤던 교훈들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잊었던 교훈들은 다시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 자신을 바꿔 나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며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Shen shian, The Buddhist Channel. [2013. 8. 4]

DJ, 앱, 비디오 게임 등을 활용하는 일본 불교

동경, 일본 - 종교가 아무리 오래된 지혜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현대 생활과 나란히 함께 가지 못한다면 뒤로 물러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현대와 소통하기 위해 일본의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이거나 될 권위적이면서도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첨단 기기의 이용**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히젠사(寺)는 이와 같은 첨단 기기 사용자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본래 코스케 마츠모토의 구도

여정을 담은 블로그로 시작되어 온라인 사찰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불자와 스님들이 사업, 육아, 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면 스님들은 트위터로 답을 준다. 또한, 명상수행을 돕기 위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위한 앱을 제공하고 있다. 테라 코야 부다라는 웹사이트는 요가클래스에서 재즈페스티벌에 이르는 불교 관련 행사를 망라해서 알려주는 캘린더 역할을 한다.

◇ **만화나 경전 속의 캐릭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인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모에사(寺)라는 별칭으로 더 알려진 료모사(寺)는 사찰 경내를 장식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불교의 약기와 인물, 상징을 이용한 경쾌한 리듬 게임인 비디오 게임 '수트라 마스터(Sutra Master)'를 개발하기도 했다.

◇ **이벤트** 첨단기술을 활용한 이벤트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다. 올해 초 티베트 페스티벌을 연 고코쿠지사(寺)는 프로젝트 이미지들을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금년 초 다양한 종교행사를 선보였던 '코겐 2013'에서는 특히 조코사(寺)의 이벤트가 돋보였는데 DJ와 라이브밴드의 공연이



불교와 현대 기술을 통한 소통 위해 불자 지식인대회 개최

콜로라도, 미국 - 제3회 불자지식인대회(Buddhist Geeks Conference)가 "불교, 기술, 그리고 세계문화의 교차점에서의 참여적 환경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콜로라도 대학 기념관에서 열렸다. 데이빗 로이, 신젠 영, 다이앤 해밀턴 등 20명이 넘는 과학자, 기업인, 불교 스승 등이 기조연설을 하고 "마음의 뇌를 통한 불교의 정신 신경적 수행", "스캔들 다루기", "마음집중 미디어: 몰입의 새로운 문화" 등의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이외에도 명상 수행, 참가자 중심 이벤트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불자 지식인모임은 불교와 첨단 현대 기술 문명의 소통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빈센트 혼과 라이언 오엘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나로파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기존의 언론사회



에서 불교에 대한 기반이 취약함을 느끼고, 팟캐스트(podcast,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교와 세상의 소통을 시도했다. 현재는 팟캐스트 뿐만 아니라 비디오 서비스, 온라인 매거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대규모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WWW.buddhistgeeks.com Shambhala Sun [2013. 8. 13]

사찰의 벽에 투사되는 신비로운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었다.

◇ **음악, 술** 모든 걱정을 털기 위해 한 잔 술을 마시려면 경전을 잘 알고 계신 스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어렵까? 여러 종파의 스님들이 모여 개업한 동경의 바우즈 바(Vows Bar)가 바로 그곳이다. 힘든 하

루의 일과 후에 불교식 이름이 붙은 칵테일을 마시며 현명한 조언을 듣는 것은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된다.

Rocket News [2013. 7. 17]

▶ 6~7면 번역은 현재 국제포교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양자님이 맡아주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우물지원사업, 3천여 주민 식수난 해결

지난 6월 30일 이주민 불자 초청 무차대회에서 방글라데시 종교평화 기원 1천만 원 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전달된 기금을 방글라데시의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위해 심사숙고를 거쳐 마을 공동 우물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식수원을 제공하고 아픈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우물설치 공사와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의 조종술국장은 사업 확인을 위해

방글라데시 현지를 방문하였다. 마을 공동 우물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화상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마친 현지인들도 직접 만났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빠티니 지역 우뉘시 마을의 우물지원사업을 통해 종교를 떠나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도 등 마을 주민 3,000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 생겼다. 우기의 잦은 비로 더뒀던 공사 진행은 9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방글라데시 종교탄압 중지하라

지난 8월 19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서 방글라데시의 소수민족·소수종교 탄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회견의 내용은 8월 초 발생한 탄압사태와 관련한 해결방안 마련과 관련자 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방글라데시 총리 앞으로 전달하였다.

작년 9월의 불교탄압사태 이후 여전히 작은 폭력사태들이 있었지만 또다시 대규모의 탄압사태가 생긴 것이다. 지난 8월 3일, 방글라데시에서는 소수민족·소수종교에 대한 대규모 탄압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치타공 산악지역의 5개 마을에서 불교사찰 2곳을 포함

하여 현지인 가옥 200여 채가 파괴되었다. 이 때문에 집을 잃은 수천 명 주민이 인도국경 인근 지역으로 피신하였고, 그 피해액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문제 해결의 작은 실마리라도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주협은 방글라데시의 문제에 대해 사안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이주민을 위한 백중 물품의 아름다운 회향

지난 8월 21일 백중기도를 회향하면서 받은 물품을 대구 성화사와 인천 지선사에서 이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마주협 사무국으로 후원 물품을 전달해 줬다.

성화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쌀 8포

대 자루의 물품을, 지선사도 10박스나 되는 치약, 칫솔을 비롯하여 생활용품을 후원해 주었다.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팔 국외봉사 후원품 모집

10월3일 ~ 12일까지 진행되는 네팔 국외봉사는 의료봉사와 학교의 열악한 시설보수, 교육 기자재지원, 화장실 건립 등을 진행합니다. 의약품과 주민 물품 지원을 위해 많은 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문의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후원계좌 | 국민은행 688801-00-022766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2013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Happy World Together

The Festival for Asian Immigrants
Sunday, 15 September, 2013

프로그램 (Program)
체육대회: 축구, 율리기, 400m 릴레이, 명랑운동회 게임.
문화행사: 전통문화공연, 강기자랑

장소 (Place)
잠실 보조경기장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Subway line 2, Sports Complex, Exit #6)

연락처(Contact) - Tel : 02-722-2206 - e-mail : ipogyo@buddhism.or.kr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Bureau of Missionary Activities,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 국제포교사회 International Dharma Instructors Association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Maha Council for Supporting Migrants

후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전법단, 무안강로회, 봉은사, 불광사, 화계사, 금강선원, 한미음선원, 전동사, 육전암 조계사, 국제선센터, 능인선원YBA,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도회

참가국 (Countries)
Bangladesh, Cambodia, Mongolia, Myanmar, Nepal, Sri Lanka, Thailand, Vietnam

초청공연 (Performance)
밴드 : 제이모닝 (J Morning)
한국 최초 K-Rock 세계 진출 그룹!